행복공감! 희망의회!

2016년 공무 국외연수 보고서

2016. 11.

진 천 군 의 회

목 차 *Contents*

Ⅰ. 연수개요

1. 연수목적 ····· 1
2. 연수기간 및 참가자 ····· 1
3. 연수배경 및 연수 중점 활동 ····· 2

Ⅱ. 방문국가 및 방문도시 현황

1. 방문국가 ····· 4
2. 방문도시 ····· 6

Ⅲ. 방문지 연수내용

1. 버갠카운티 하수종말처리장 ····· 9
2. 이타카 에코빌리지 ····· 13
3. 파크웨이 과수원 ····· 18
4. 하이라인 파크 ····· 22
5. UN 본부 ····· 26
6. 토론토 시청 ····· 28
7. 국회의사당과 백악관 ····· 30
8.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원 ····· 32
9. 하버드대학교 ····· 33

Ⅳ. 우리군 접목 시사점

1. 대중교통·일방통행도로 확대로 교통불편 해소 ····· 35
2. 도시개발 정책에 도시재생 대안 마련 ····· 36
3. 진천군 명소 · 스토리의 관광자원화 ····· 37

Ⅴ. 2016 국외연수를 마치며 ····· 38

CHAPTER 1
연 수 개 요

1 연 수 목 적

○ 선진 외국의 문화·역사 시설을 견학(탐방)하고 우리군 문화·관광 사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사례 수집

○ 각종 선진 제도와 시설의 비교 견학을 통하여 우리군 시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선진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 향상

○ 글로벌시대에 걸맞도록 의원들의 국제화 감각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 역량 강화

2 연수기간 및 참가자

○ 연수기간 : 2016. 10. 11. ~ 10. 20.(8박 10일)

○ 연수지역 : 미국, 캐나다(2개국)

○ 연수인원 : 10명(의원 7, 공무원 3)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진천군의회	의 장	안 재 덕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이 은 천
〃	부 의 장	박 양 규	〃	전문위원	윤 유 경
〃	의 원	염 정 환	〃	주 무 관	이 용 구
〃	의 원	신 창 섭			
〃	의 원	김 상 봉			
〃	의 원	장 동 현			
〃	의 원	이 영 자			

3 연수배경 및 연수 중점 활동

□ 연수배경

○ 2016년 공무 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의회 운영 등 선진제도 벤치마킹

○ 농업, 환경, 에너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선진국의 우수사례 수집과 우리군 접목

○ 각종 선진제도(시설)에 대한 비교 시찰을 통하여 우리군 제도(시설)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 연수 중점 활동

○ 버갠카운티 하수종말처리장 탐방 **/ 환경분야**
(BERGEN COUNTY UTILITIES AUTHORITY)
- 버갠카운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탐방
- 하수처리시설 견학

○ 이타카 에코빌리지(Ithaca Eco Village) 방문 **/ 농업·에너지분야**
- 빌리지 내 친환경 농법 견학
- 친환경 건축(주택) 방문 및 에너지 절약 실천사례 수집

○ 파크웨이 과수원((Parkway Orchards & Country Market) 방문 **/ 농업(마케팅)분야**
- 농산품 생산 현장 견학 및 Country Market 체험

○ 하이라인 파크(High Line Park) 탐방 **/ 도시개발 분야**
- 선진국의 도시개발 정책 방향 및 도시재생 현장 견학

○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 견학 **/ 교육분야**
- 하버드대학교 역사 탐방 및 학교시설 견학

○ UN 본부(UN Headquarters) 등 견학 **/ 문화·관광분야**

※ 주요연수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주 요 내 용
1일차 (10. 11) 화요일	진 천	인 천	○ 인천공항 출발
	인 천	뉴 욕	○ UN본부 견학
2일차 (10. 12) 수요일	뉴저지	뉴 욕	**○ 버겐카운티 하수종말처리장 탐방** ○ 자유의 여신상 관람 ○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견학
3일차 (10. 13) 목요일	뉴 욕	워싱턴	○ 국회의사당 견학 ○ 백악관 견학 ○ 스미소니언 우주 항공 박물관 탐방 ○ 링컨 기념관 견학 ○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원 방문
4일차 (10. 14) 금요일	워 싱 턴	나이아가라	**○ 이타카 에코빌리지 방문** ○ 나이아가라 폭포 견학(미국)
5일차 (10. 15) 토요일	나이아가라	토론토	○ 나이아가라 폭포 견학(캐나다) **○ 파크웨이 과수원 방문** ○ 토론토 시청 견학
6일차 (10. 16) 일요일	토론토	몬트리올	○ 킹스턴 사우전드 아일랜드 관람 ○ 몬트리올 경기장 견학
7일차 (10. 17) 월요일	몬트리올	퀘 백	○ 퀘백주 청사 견학 ○ 시타델 요새 견학
8일차 (10. 18) 화요일	퀘 백 보스턴	뉴 욕	○ 하버드 대학 견학 ○ MIT 대학 견학 ○ 우드베리 견학
9일차 (10. 19) 수요일	뉴 욕	뉴 욕	**○ 하이라인파크 견학**
	뉴 욕	인 천	○ 뉴욕공항 출발
10일차 (10. 20) 목요일	인 천	진 천	○ 입국 및 진천 도착

CHAPTER 2

방문국가 및 방문도시 현황

1 방 문 국 가

1.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전도

뉴욕 5개 자치구

□ 일반현황

- ○ 수　　도 : 워싱턴 D.C(Washington, D.C)
- ○ 인　　구 : 약 3억 2135만 8864명(2015년 기준)
- ○ 면　　적 : 982만㎢ (한반도의 42배)
- ○ 민족구성 : 백인(80%), 흑인(12.8%), 인디언과 동양계(7.2%)
- ○ 종　　교 : 개신교(52%), 로마카톨릭(24%), 몰몬교(2%) 등
- ○ 언　　어 : 영어
- ○ 화폐단위 : US Dollar

□ 정치·경제

- ○ 정부형태 : 연방공화제
- ○ 의회형태 : 양원제
- ○ 주요정당 : 민주당, 공화당
- ○ 주요 수출품목 : 영화, 무기, 철강제품, 화학제품, 반도체 등
- ○ 주요 수입품목 : 의류, 가전제품, 신발, 가구, 직물, 선박 등

2. 캐나다(Canada)

□ 일반현황

○ 수　　도 : 오타와(Ottawa)

○ 인　　구 : 약 3509만 9836명(2015년 기준)

○ 면　　적 : 998만㎢ (한반도의 45배)

○ 민족구성 : 영국계(21%), 불란서계(16%), 스코틀랜드계(15%), 아이리쉬계(14%) 등

○ 종　　교 : 카톨릭(46%), 개신교(18%), 성공회(12%), 기타(24%)

○ 언　　어 : 프랑스어, 영어

○ 화폐단위 : Canadian Dollar

□ 정치·경제

○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

○ 의회형태 : 양원제

○ 주요정당 : 보수당, 신민주당, 캐나다 자유당, 퀘백 블록당

○ 주요 수출품목 : 원유, 승용차, 정제유, 금, 천연가스 등

○ 주요 수입품목 : 원유, 승용차, 자동차부품, 정제유, 화물차량 등

2 방 문 도 시

1. 워싱턴 D.C(Washington, D.C)

정식명칭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이며, 포토맥 강(江) 연안의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 사이에 있는 연방직할지로, 어느 주에도 속해 있지 않다. 시가지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을 중심으로 넓은 도로들이 방사상으로 뻗어 있으며, 도로들은 바둑판 모양으로 교차되어 있다.

연방정부기관들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이지만, 동시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빈부의 격차와 학력의 격차가 커 대도시권에 사는 주민들은 학력과 소득이 높은 반면, 시 안에 사는 주민들 중에는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장애자·노인 등이 많다.

명소로는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을 비롯하여 역사적으로 진귀한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국회도서관, 각종 박물관이 있는 스미소니언 협회, 링컨기념관, 제퍼슨 기념관, 알링턴 국립묘지 등이 있다.

2. 뉴욕(New York)

미국 최대의 도시로, 미국의 상업·금융·무역의 중심지로서, 또 공업도시로서 경제적 수도라 하기에 충분한 지위에 있으며, 많은 대학·연구소·박물관·극장·영화관 등 미국 문화의 중심지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외를 포함하여 1,600만이 넘는 방대한 인구를 수용하는 이 거대도시는 미국 내에서도 독자적인 세계를 이루는 도시이다.

국제적으로는 대무역항으로서 대서양 항로의 서단에 위치하는 가장 중요한 항구이며, 1920년대 이후에는 런던을 대신하여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국의 국제적인 지위 향상과 더불어 세계 경제에 대한 지배적 지위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1946년 국제연합(UN)본부가 설치된 후에는 국제정치의 각축장이 되었다.

또한 시는 맨하탄, 브롱크스, 부르클린, 퀸스 및 스태튼섬의 5개구(boroughs)로 이루어져 있다. 맨하탄은 시의 중심부이며, 그 남단에 금융 중심지인 월가(街)가 있다. 월가에서 북동쪽으로 브로드웨이와, 이것과 비스듬히 교차하는 5번가의 두 대로가 시를 종관(縱貫)하고 있다. 브로드웨이의 42번가는 타임스퀘어로 시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며, 그 남쪽에 펜실바니아역, 동쪽에 그랜드 센트럴역 등 도심의 두 주요역이 있고, UN 본부도 동쪽 이스트 강가에 있다.

3. 토론토(Toronto)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의 주도(州都)이며, 온타리오 호(湖) 북쪽 연안에 있는 캐나다 제1의 도시이다. 오대호 수운(水運)의 요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호항(湖港)으로 발전하였다. 1749년 프랑스의 무역항으로서 요새가 축조되었으나 1759년 영국에 점령되어 요크라고 불렸으며, 1795년 상(上)캐나다의 주도(州都)가 되었다.

1834년 이후 토론토로 부르게 되었으며 몬트리올이 프랑스계 캐나다의 중심지인 데 반하여, 토론토는 영국계 캐나다의 최대 중심지이다.

오대호의 수운을 이용하여 석탄을 비롯한 코크스·석유·밀·잡화를 집산한다. 또 온타리오 반도의 풍요한 농업지대에 위치하며, 광물자원이 풍부한 로렌시아 대지 및 나이아가라 폭포의 전원지(電源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공업이 발달하여 부근의 해밀턴·윈저와 함께 캐나다 제1의 공업지대를 이루고 있다.

시의 공업지구는 두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모두 배수가 좋지 않은 소택지를 매립하여 건설하였으며, 항만시설도 토목기술의 정수(精髓)를 모은 것이다. 시내에는 장대한 건축물이 많고 특히 세인트제임스교회 등 교회가 많다. 시의 남쪽 끝 호반에서는 1912년부터 매년 6월 국제무역박람회가 개최된다.

4. 퀘백(Quebec)

세인트로렌스강 어귀에 내만(內灣)이 갑자기 좁아진 지점에 발달한 항구도시이다. 지명은 인디언어로 해협 또는 갑자기 좁아진 지점을 뜻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퀘백에는 프랑스계 주민이 많으며, 언어도 프랑스어가 상용어로 쓰이고 있다. 신문용지의 제조를 비롯하여 금속·조선·펄프·피혁·식품가공·섬유 등의 공업이 성하며, 곡물·석유의 거래도 활발하다. 그러나 공업·무역면에서 새로 발전한 몬트리올을 따르지 못한다.

시에는 1823년 이래의 성채를 비롯하여 17세기 이래의 건축물이 많아 캐나다 최대의 역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또 1852년 설립된 캐나다 최고의 라발대학교는 북아메리카에서 프랑스 문화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CHAPTER 3
방문지 연수내용

1. 버갠카운티 하수종말처리장
(BERGEN COUNTY UTILITIES AUTHORITY)

▣ **방문일시 : 2016. 10. 12(수) 10:00**

▣ **위　　치 : 298 Mehrhof Rd, Little Ferry, NJ 07643**

▣ **명　　칭 : Bergen County Utilities Authority**

○ 뉴저지주 버갠카운티 하수종말처리장((BERGEN COUNTY UTILITIES AUTHORITY)은 카운티내 400㎢, 47개 마을 50만 인구의 생활폐수를 처리하여 하켄섹강(Hackensack River)으로 방류, 수질 개선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일평균 하수 처리량은 약 1억 9백 갤런으로 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엔지니어 등 총 180명이며, 운영비용은 1972년까지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 하였으나, 현재는 정부의 지원 없이 수익자가 부담하는 처리 비용만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 버갠카운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는 모두 9명의 무보수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주요한 사업의 결정이나 노후 시설물의 정비 등 사업비 투자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 특히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문제와 관련,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한계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현재 버갠카운티 하수종말처리장의 능력으로 인근 마을의 생활폐수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며, 노후한 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한 투자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즉 보다 발전적인 신공법이 개발 되더라도 무조건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에서 꼭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도입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시설 투자 없이 하수처리공정 및 운전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하수처리능력과 하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 선진국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을 잠시 해 보았다.

○ 또한, 버갠카운티 하수종말처리장 총괄관리자 스미스씨로 부터 관리시설과 하수 처리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 들은 후 하수를 처리하는 현장을 직접 견학할 수 있었는데, 첫눈에 봐도 기계·설비 등은 최신의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플라스틱 용기 등 각종 부유물질이 혼합되어 커다란 수조에 모아진 생활폐수가 꽤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악취가 크게 개선되고 강으로 배출하기 전 맑은 물 상태로 처리되는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 연수성과

○ 합리적 투자원칙 및 사업방식으로 예산 절감

- 인구 50만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면서 시설 운영을 정부의 지원없이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한다는 말에 궁금증이 더할 즈음, 노후된 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는 기존의 것을 중심으로 꼭 필요한 투자만 선별적으로 한다는 답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미국인들의 합리적인 방식과 예산 지출에 대한 신중함을 엿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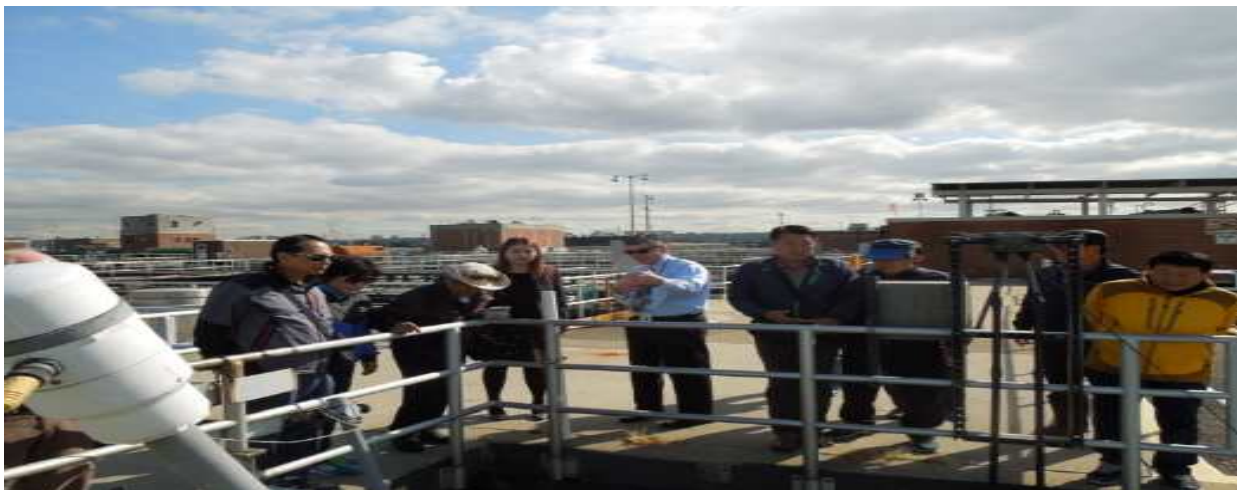
○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버갠카운티 하수종말처리장의 주요사업과 운영에는 주민으로 구성된 무보수 위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오히려 자원봉사와 같은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보수 위원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재능을 지역을 위해 활용함으로써 행복한 카운티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 우리군만 해도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다. 쉽게는 자원봉사부터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더 나아가 보다 많은 군민들이 더 쉽게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여 지역공동체가 건강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 현장 견학 사진

총괄책임자 설명

질의·응답



시설 견학

2. 이타카 에코빌리지(Ithaca EcoVillage)

▣ **방문일시 : 2016. 10. 14(금) 14:00**

▣ **위　　치 : 100 Rachel Carson Way, Ithaca, NY 14850**

▣ **명　　칭 : Ecovillage Ithaca**

○ 미국 뉴욕주의 북부에 위치한 이타카(Ithaca)는 인구 약 3만의, 케이유가호의 남단에 있는 관광·행락지이며, 주요공업으로는 계산기 동력용 체인·총기 등의 제조공장이 있으며, 주변에는 낙농과 양계사업이 활발하다.

○ 그 중 이타카 도심에서 3.2㎞ 떨어진 웨스트힐 꼭대기에 위치한 에코빌리지(Eco Village)는 CRESP라는 비영리단체의 후원으로 결성되었으며, 자연과 문명이 조화를 이룬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생태마을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 에코빌리지내에는 Frog House, Song House 그리고 Tree House 라는 이름의 3개 마을이 있으며 토지 이용과 유기농법, 공동체 생활, 친환경 건축, 에너지 절약 분야에서 최고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

○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한 일반적인 생태마을과 달리 이타카 에코빌리지는 도시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도시의 스포롤(sprawl) 현상(대도시가 교외로 무질서하게 개발 확산되는 현상)에 효과적인 대안 역할을 하며, 현대 문명에 찌든 도시를 생태 도시로 바꿔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라는 설명이다.

○ 이타카 에코빌리지의 이러한 현실적인 대안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각국에서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모델이 되고 있으며, 유럽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 이타카 에코빌리지를 건설한 사람은 리즈 워커라는 사람으로 생태마을을 건설하는 데 기술적인 부분보다 사랑과 신뢰감,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강조하였고, 실제로 빌리지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한달에 2~3회 정도씩, 마을의 유기농 농장에서 자란 먹을거리로 이웃과 함께 공동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마을의 대소사를 상의하기 위해 마을회관에 모여 회의를 한다고 한다.

○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에코빌리지의 사람들은 주로 코렐대학이나 시내의 일터에서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심에 볼일이 있거나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은 카풀을 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한다. 카풀이나 자전거의 이용은 이웃과의 친밀감과 유대를 형성할 뿐 아니라 동시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 또한 각 주택은 건축자재와 마감재의 친환경 소재 사용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모든 주택을 남향으로 짓고, solra panel 발전기 설치, 단열 기능 강화 등으로 최소한의 에너지원으로 냉난방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덕분에 실제로 가구당 전기요금은 월평균 16달러 정도로 적게 나온다고 한다.

○ 처음에는 에코빌리지라는 명칭만으로 친환경 농업과 우리군 에너지자립형 생거에코타운 조성사업과 접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에코빌리지는 환경 친화적인 소재로 만든 집에서 태양전지로 불을 밝히는 등 에너지 절약 주택뿐 아니라 공동체생활 등 벤치마킹 할 부분이 의외로 많았다.

□ 연수성과

○ 홀몸 어르신들의 사랑 넘치는 공동체 생활 가능성

- 이타카 에코빌리지는 친환경 생태마을이라고 정의하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생태마을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우리의 생태마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 특히, 조성 초기 단계부터 신뢰감과 사랑이 바탕이 되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큰 차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 나라의 경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이며, 지자체별로 고령의 어르신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소식을 영상을 통해서도 종종 접하고 있다.
- 같이 식사를 하는 것 위주의 우리 공동체 생활방식에 그 안에 있는 분들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변화를 준다면 훨씬 의미 있고 활력이 넘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 **다양한 퍼머컬처(Permaculture)의 개발 및 확대**

- 퍼머컬처(Permaculture)는 말 그대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영구적 농법으로, 에코빌리지에서는 포도와 키위, 옥수수뿐만 아니라 덩굴식물을 공동 텃밭에서 키운다고 한다. 이때 시트멀칭(Sheet Mulching)[1] 이란 방법을 활용하는데,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뿐 아니라 친환경 농법으로 농업군이기도 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 가을 들녘, 땅에 돌려 주어야 할 볏집들이 흰 비닐에 쌓여 있는 광경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우리도 이제 다양한 퍼머컬쳐를 개발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에너지 절약 의식의 확산 필요**

- 우리군도 태양광을 사용하는 주택이 늘고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를 아끼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다양한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군민들에게 다양한 에너지 절약 정보 제공으로 보다 많은 군민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생거에코타운에 건전한 공동체 역할 기대**

- 우리군 덕산면 기전리 일원에 조성되는 생거진천에코타운은 에너지 부분을 특화하는 주택단지로 조성이 될 듯 싶다. 그러나 그 외에 입주 초기부터 지역공동체가 제대로 구동할 수 있도록 도서관, 체육시설 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함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

1) 시트멀칭(Sheet Mulching) : 멀칭을 위해 마련한 재료를 여러겹 땅에 깐 뒤 녹사를 뿌리고 그 위에 골판지를 깐다. 지렁이는 골판지를 매우 좋아해서 그 곳에 집을 짓고 골판지 안에 자연스럽게 수많은 골판지 터널이 생기며 토질이 좋아진다.

□ 현장 견학 사진

에너지 절감 방법 설명

에코빌리지 마을 설명

방문 기념사진

3. 파크웨이 과수원(Parkway Orchards & Country Market)

▣ **방문일시 : 2016. 10. 15(토) 15:00**

▣ **위　　치 : 15000 Niagara parkwqy Niagara on the lake ON L0S1J0**

▣ **명　　칭 : Parkway Orchards & Country Market**

○ 한인 우원하씨가 운영하는 파크웨이(Park Way)에 위치한 파크웨이 과수원(Parkway Orchards & Country Market)은 복숭아, 체리, 사과를 주로 재배하는 농장이며, 농장안에 조그마한 마켓도 함께 운영하는 곳이다.

○ 농장주 우원하씨는 대구가 고향인 분으로 나이아가라 파크웨이에 복숭아 농장을 운영하면서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 하였는데, 우원하씨가 운영하는 과수원은 약 3만평 정도로 아들 내외 등 가족을 중심으로 자메이카 사람들을 인부로 고용하여 농장을 운영한다고 한다.

○ 파크웨이 과수원이 이국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단순히 과일을 생산하는 농장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접목하여 꾸준히 홍보한 결과이다.

○ 파크웨이 과수원은 농약 사용을 최소한으로 하는 등 안전한 친환경 방법으로 질 좋은 과일을 생산하여 도시의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한번 파크웨이 과수원의 과일을 접한 소비자들은 그 품질을 믿고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구매한다고 한다.

○ 이와 함께 파크웨이 과수원에서는 주력 품목인 복숭아를 이용하여 잼을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농장을 방문하는 도시의 소비자들이 친환경의 과일을 직접 수확하고 손수 잼을 만드는 체험을 함으로써 농장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 또한 파크웨이 과수원은 농장에서 생산·가공한 상품은 물론 방문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상품을 마련하고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다른 곳을 방문하지 않고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었다.

○ 한인 우원하씨가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으로는 끊임없는 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지금 현재는 복숭아가 농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복숭아 나무의 생산력이 떨어질 즈음을 대비하여 체리나무와 사과나무를 심어 미래를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 연수성과

○ 세계 어디서도 통하는 성공의 열쇠! 신뢰와 성실함

- 한국인들은 세계적으로 부지런한 민족으로 통한다. 이번에 우리가 방문한 파크웨이 과수원을 운영하는 우원하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 그는 까다로운 도시의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얄팍한 상술을 부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을 과수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뢰감을 주었고, 또한 성실한 모습이 현지인들을 사로 잡았던 것이다.

○ 잼을 만드는 과수원, 체험형 프로그램 도입 및 확대

- 사실, 한국에도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과수의 생산에만 진력하지 않는 농장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파크웨이 과수원처럼 잼을 만드는 등 체험프로그램의 접목을 시도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 우리군에서도 농가들이 자신들의 농산물을 가공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보태어 도시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 농법 및 농장 운영에 대한 노하우 공유

- 파크웨이 과수원을 방문하여 궁금하였던 것은 나무마다 1.0m 정도 높이까지 하얀색 페인트칠이 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유는 토끼나 노루 등 동물들이 나무를 상하게 하는 것을 막고 제초제 살포 등으로 나무가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수성페인트칠을 한 거란다.
- 우리군의 경우도 미쳐 알려지지 않는 노하우를 가진 농민들이 많을 것이다. 이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창구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현장 견학 사진

파크웨이 과수원 책임자 설명

방문 기념사진

4. 하이라인 파크(HighLine Park)

▣ **방문일시 : 2016. 10. 19(수) 15:00**

▣ **위　　치 : 15000 Niagara parkwqy Niagara on the lake ON L0S1J0**

▣ **명　　칭 : Parkway Orchards & Country Market**

○ 하이라인(High Line)은 뉴욕시에 있는 길이 1마일(1.6㎞)의 공원이다. 19세기 중반 뉴욕의 도로는 늘어나는 화물 운송으로 기차, 자동차, 마차가 뒤엉켜 사건사고가 비일비재 하였으며,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뉴욕시는 지상 10m 높이에 고가 철도를 만들어 화물을 운송하기로 결정하였다.

○ 1929년 완성된 하이라인 고가철도는 20세기 중반까지 뉴욕시의 가장 중요한 화물 운송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고속도로망이 건설되고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이용횟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고 결국 1980년대 폐선이 되었다.

○ 폐선으로 방치된 하이라인이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뉴욕시 부동산 소유주들은 뉴욕시에 하이라인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흉물이 된 하이라인에 꽃과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하여 2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철길을 꽃과 나무가 자생하는 생태공원, 하이라인 파크(HighLine Ppark)로 변화시켰다. 하이라인이 도시의 흉물에서 시민에게 여유와 편안함을 주는 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 뉴욕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되돌아 온 하이라인 파크는 4계절 자연의 옷을 갈아 입으며 시민들에게 편안함을 줄 뿐 아니라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관광코스가 되었다. 미국 보다 훨씬 역사가 길고 유형·무형의 재산이 많은 우리의 경우 옛 것에 대한 소중함이 덜 한 것 같아 반성하며, 전통, 지나 온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다.

□ 연수성과

○ 발상의 전환은 얼마나 위대한가?

- 하이라인(High Line)은 말 그대로 고가(高街)란 뜻으로, 고가를 활용한 도시의 재생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없었다면 삭막한 빌딩 숲 사이의 폐 고가도로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며, 어쩌면 어마아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철거되어 그저 한낱 고철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 **지역을 바꾼 하이라인! 우리도 있지 않을까?**

하이라인 파크는 뉴욕 시민들에게도, 방문자인 우리에게도 공원이라는 의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하이라인 파크가 갖는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 지역공간의 풍경변화 : 거대한 빌딩숲과 낡은 철도! 옛것과 새것이 교묘하게 섞여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 공간문화의 변화 :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뉴욕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게 감각적인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공연과 예술활동이 끊이지 않는 하이라인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 지역경제 활성화 : 하이라인을 중심으로 인근 디스트릭트는 폐쇄된 정육공장 지역이 고급 패션거리로 탈바꿈하였는가 하면 낡은 공장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우리의 전통시장과 같은 마켓을 형성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시너지를 내고 있다.

○ **우리도 도시재생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

- 우리군만 해도 도시개발이 활발하다. 인근 청주시는 옛 연초제조창을 철거하지 않고 각종 문화행사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도시재생 쪽에 무게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군 역시 도시개발시 새로운 것을 만들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미 존재했던 것을 되살리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현장 견학 사진

나무가 자라는 공원으로 변신한 하이라인

빌딩숲 휴식공간으로 변신한 하이라인

5. UN 본부(UN Headquarters)

○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설립된 UN본부는 세계 평화와 각국의 경제적 및 사회적인 자립을 돕는 기구다. 초기에 51개국이 회원에 가입했으며, 현재는 192개국에 이른다.

○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UN 본부 안에서는 치외법권이 인정된다.

○ UN 본부에는 UN 총회 빌딩(General Assembly Building), 회의장 빌딩(Conference Building), 사무국 빌딩(Secretariat Building), 함마르셸드 도서관(Hammerskjold Building) 등 4개의 빌딩과 정원이 있다.

○ 우리가 방문한 곳은 UN 총회가 열리는 건물로 로비에는 반기문 총장을 비롯하여 역대 사무총장들의 초상화를 볼 수 있으며, 회의장에는 1,880개의 각국 대표와 매스컴 관계자들을 위한 좌석과 800석의 일반인을 위한 좌석이 있다.

○ UN은 국제연합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의 5개 주요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모든 직원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한국의 반기문 사무총장이며, UN내 한국인 직원의 수는 150여명 정도라 한다.

< 연수후기 >

○ 공항을 빠져나와 UN 본부를 견학하기 위하여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 동안, 참 교통이 혼잡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차가 많이 밀릴 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눌러대는 경적소리가 유독 시끄럽게 들렸다. 실제로 우리의 연수를 돕는 가이드 겸 기사는 우리가 UN본부 견학을 마치고 나올 때 까지 주차하지 못하고 시내를 빙빙 돌았다고 한다.

○ 덕분에 눈에 많이 띄는 것이 노란 택시였다. 워낙 교통량이 많기도 하고 주차비용이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한다고 한다. 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동하지만 그나마 교통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은 일방통행의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거의 모든 도로에서 일방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 UN 본부를 관람하기 위하여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여야 한다.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여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를 맨 처음 맞아 준 것은 로비의 반기문 사무총장의 초상화였다.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이국에서, 더군다나 국제기구 UN본부에서 그의 초상을 맞는다는 것에 저절로 뿌듯함이 느껴졌다.

6. 토론토 시청(Toronto City Hall)

< 토론토 시청 신청사 >

○ 토론토 시청 신청사는 20층과 27층의 각기 다른 높이의 반원형 건물이 둥근 돔을 가진 원형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1965년 핀란드의 건축가 빌요 레벨(Viljo Revell)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 도서관과 공공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2층 높이의 수평 기단부에서 솟아오른 두 개의 타워는 안쪽 표면은 유리와 스테인레스 스틸, 볼록한 바깥쪽 파사드는 질감을 살린 철근 콘크리트로, 서로 향해 안으로 살짝 굽어 있다.

○ 이들 타워는 접시 모양의 의사당을 둘러싸서 보호하는 날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시를 향해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 어느 쪽이든 그 곡선을 살린 형태는 주위에 즐비한 장방형 도시 건물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 시청 앞 나단 필립스 스퀘어(Nathan Philips Square)엔 커다란 분수와 연못이 있는데 여름엔 시민들에게 시원한 휴식의 장소로, 겨울엔 분수의 물을 이용하여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 토론토 시청 구청사 >

○ 1899년에 완공되어, 현재는 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시청 건물은 역사적인 의미와 건축미를 반영하여 1989년 유적지 및 기념물 위원회에 의해 국립 유적지로 정해졌다.

○ 시계탑이 딸려 있는 고풍스런 석조건물인 구 시청사는 캐나다 출신 건축가 에드워드 제임스 레녹스(Edward James Lennox)가 디자인하여 건립하였다.

○ 오랜 역사에서 묻어나는 편안함과 높게 솟은 건축의 웅장함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며 지극히 섬세한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어 쉬이 눈길을 돌릴 수 없었다.

< 연수후기 >

○ 토론토 시청은 구청사와, 구청사의 붕괴를 우려해 다시 건립한 신청사가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현대적인 감각의 신청사는 세련되고 독특한 느낌을 주었으며, 그 옆에 위치한 구청사는 상당히 고풍스런 분위기로 관공서라는 이미지보다는 박물관 정도로 활용되었을 것만 같은 인상을 받았다.

○ 시청사 앞의 광장은 시민들을 위한 광장이란 느낌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형 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응원하고 있었는데 대규모 공연이나 행사를 개최하기도 적합한 장소인 것 같았다.

7. 국회의사당(United States Capitol)과 백악관(White House)

< 국회의사당(United States Capitol) >

○ 국회의사당은 워싱턴 내셔널 몰(National Mall) 끝 부분에 있으며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다

○ 1793년 9월에 착공하여 1800년 11월에 완공되었고 돔이 우뚝 솟은 네오클래식 양식의 웅장한 건물은 보는 이를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돔의 정상에는 청동으로 제작된 자유의 여신상이 위치하고 있다

○ 건물의 북쪽은 상원, 남쪽은 하원이 사용하며 가운데 돔의 바로 밑은 원형의 홀로 되어 있다. 원형 홀의 동쪽으로 콜럼버스 생애를 표현한 그의 청동문이 나 있다.

○ 미국의 국회의사당은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의 관공서 중 가장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다. 이 곳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은 그 크기와 화려함에 압도당할 수 밖에 없는데, 그만큼 미국에서는 의회가 국가의 최고 '주권(主權)기관' 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백악관(White House) >

○ 워싱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펜실베이니아가(街)에 있다. 백악관을 포함한 주위 부지는 모두 7만 2000㎡이다. 1800년 제2대 대통령 J.애덤스 때 완성되어 1814년 대영(對英)전쟁 때 소실되었다가 재건 후 외벽을 하얗게 칠한 데서 이 명칭이 생겼고, 제26대 대통령인 테오도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때 정식 명칭이 되었다.

○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이 관저의 2층에서 산다. 대통령집무실은 타원형이어서 오벌 룸(Oval Room)이라 부르며, 방문객을 이 방에서 접견한다. 방의 수는 130개가 넘으며 댄스파티와 리셉션 등이 거행되는 동관(東館:East Wing)은 일반인의 참관이 허용된다. 백악관은 관저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예산국(豫算局) 등 직속관청도 이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직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 연수후기 >

○ 세계 최강국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견학하는 마음은 여느 다른 기관을 방문하거나 견학하는 것 보다 흥미롭고 기대가 되었다. 우리군 의회 의원들 모두 집행부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의회 존재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군민들이 행복한 진천군을 만들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의원이 되기를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 백악관을 처음 본 소감은 생각보다는 소박하다는 느낌이었다. 세계 최강의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을 지근거리까지 접근하여 볼 수 있었던 점이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다.

8.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원(Korean War Veterans Memorial)

○ 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은 1995년 7월 27일 설립된 야외 기념공원과 추모벽이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5백8십만 미군과 그 중 54,246명의 전사자를 추모하고자 건립되었다 한다.

○ 추모벽에는 전사자의 얼굴과 부상자와 실종자, 포로의 수와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얼굴을 새겨 넣었으며, 바로 옆에는 하루빨리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따뜻한 집과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을 미군 병사들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다.

< 연수후기>

○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다. 하지만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원에 실물 크기로 조각된 전쟁의 공포와 피로에 젖어 있는 듯한 젊은 군인의 조각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 '자유는 거져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나 보지도 못했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나라의 부름에 응한 아들들과 딸들을 기린다' 는 대리석 조형물 문구에 절로 숙연해졌다.

9.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

(존 하버드 동상)

(하버드대 도서관)

○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으로 1636년 메사추세츠 식민지 관할 일반의회에서 대학 설립안이 승인되었으며, 이로써 영국의 식민지인 미국에서 최초의 대학이 설립되었다.

○ 1638년 찰스 타운에 살던 존 하버드(John Havard, 1607~1638) 목사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면서 그가 소장했던 400여권의 도서와 재산의 절반이 대학에 기증되었다. 이러한 그의 공적을 기려 교명을 하버드칼리지(Harvard College)로 변경하였다.

○ 2만 1,000명의 전체 학생 가운데 학부생은 약 6,700명인 반면 대학원생은 약 1만 4,500명에 이른다. 하버드대학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 도서관으로 차일드 메모리얼 도서관, 언어학 도서관 등 90여 개의 부속도서관에는 총 1,890만 권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그밖의 부속기관으로 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한 다양한 박물관과 미술관, 천문대 등이 있다. 매년 학부생의 65% 이상이 장학금을 비롯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 연수후기>

○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대학교는 상당히 고풍스럽고 클래식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도로에서 가까운 어느 하나의 문으로 하버드를 들어갔는데, 미국의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처럼 커다란 간판으로 학교 정문임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하버드 캠퍼스를 견학하는 동안 이곳저곳에 캠퍼스로 출입할 수 있은 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남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실속을 중시하는 미국인들의 사고에서 비롯되었으리라 생각한다.

○ 하버드는 꼭 공부를 잘해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다. 당연히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사회봉사활동을 중시해 공부만 잘하는 1등 보다는 사회 봉사 정신이 강한 2등을 뽑는다는 것이다. 우리도 꽤 여러해 전부터 입학사정관을 활용한 학생선발을 하는 대학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공부로만 평가하기 보다 인성과 가능성에 기대하는 선발 방법이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구동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하버드의 많은 학생들은 장학금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것과 달리 미국의 대학들은 성공한 졸업생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버드의 1년 기부금이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을 정도라니 세계최고의 대학에서 장학금 혜택을 받으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나라의 환경이 부럽기만 했다.

○ 하버드에는 1년에도 수천명의 방문객이 방문한다고 한다. 존 하버드의 동상의 발을 만지면 하버드로 돌아온다는 속설이 있단다. 우리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존 하버드의 동상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언제가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CHAPTER 4
우리군 접목 시사점

1. 대중교통·일방통행 도로 확대로 교통불편 해소

○ 뉴욕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이지만 자동차 이용율이 낮고 대중교통 이용율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도시 중 하나이다.

○ 도심 도로를 달리는 차들 중 자동차 보다는 노란 택시가 더 많다는 것을 눈치 채는 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실제로 시민의 절반 이상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근·통학을 하고 있다고 한다.

○ 또한, 도심의 많은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많은 사람과 자동차들이 움직이면서도 그다지 혼잡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은 일방통행 도로 운영이 한 몫을 한 것이란 생각이다.

⇒ 우리군은 얼마전 2030년 진천군기본계획안을 입안하면서 2030년 인구지표 170,000명을 설정하였다. 인구가 늘게 되면 자연스레 교통량이 늘게 될 것이다. 인구 17만의 진천시가 교통체증 등 교통 불편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대중교통과 일방통행 도로의 확대 등 방법을 사전에 고민해 보아야 할 일이다.

⇒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주차장이 늘었다는 자조 섞인 우스개 소리가 있다. 교통란 해소로 군민을 편리하게 하고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임에도 오히려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결과를 낳으면 안 될 일이다. 불법행위에 대처하는 단호함과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도시개발 정책에 도시재생 대안 마련

○ 도시 재개발(Urban Renewal) 또는 도시 재생(Urban Regeneration)은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시가지의 노후 쇠락으로 발생하는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물리·환경적,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부흥시키는 것을 말한다.

○ 우리군의 경우 덕산혁신도시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혁신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공공기관과 학교 등이 연이어 문을 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인근 덕산면 소재지는 물론 다른 읍·면 지역까지 인구의 감소 또는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다.

⇒ 우리가 방문한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는 세계적으로도 도시재생의 모델이다. 뉴욕의 쓸모 없어진 하이라인이 뉴욕시 전체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고, 우리군 대규모 도시개발과 문화시설 등을 건립할 시 기존 도시에 미칠 영향 등을 진지하게 고민 후에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 또한, 우리는 너무 쉽게 옛 것을 지울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번 연수를 통하여 가슴 깊이 느낀 것은 시간과 그 시간이 만들어 낸 전통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예를 들자면 오래된 건물이나 다리 등은 유형의 소중한 재산이며, 오랜 동안 우리를 지탱해 온 훌륭한 정신 또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무형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3. 진천군 명소 · 스토리의 관광자원화

○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 + 텔링(Telling)의 합성어로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을 뜻한다. 즉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이다. 이국에 대한 기대와 동경, 그리고 우리와 사뭇 다른 자연 풍경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인상을 만들기도 하겠지만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지혜가 한 몫 했다는 생각이다.

○ 미국은 역사가 길지 않다. 우리 나라에 비하며 택도 없이 짧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미국이 위대하게 생각되는 부분 중 하나가 자연 자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재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들의 태도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 뉴욕의 상징이 된 자유의 여신상이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항 리버티섬에 세워진 거대한 여신상으로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기회 등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경우는 381m라는 건물의 높이와 함께 영화 킹콩의 배경이 되면서 유명세를 탔다고 한다. 빌딩은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빠지지 않고 들르는 명소가 되었고, 건물내 기념품 판매점에서는 빌딩을 소재로 각종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 우리군에도 진천군을 대표할 만한 지형이랄지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을 단지 보이는 대로만 말고 거기에 이야기를 입히고 상징적인 의미의 숨결을 불어 넣어 그 자체가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지형, 배티성지, 용(龍)이라는 소재 등이 훌륭한 예가 될 것이다.

CHAPTER 5
2016 국외연수를 마치며

진천군의회 의원 김 상 봉

이번 7대 들어와서 다른 의원님들은 2번째 연수이지만 나는 첫 번째 참가하는 국외연수이다. 가기 전부터 의견이 분분하여 연수 목적,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결코 쉽지는 않았다.

기관방문이나 공식방문 계획이 많지 않았기에 좀 더 폭넓게 선진국 문화, 경제, 도시기반 시설, 농업, 공공성 분야 등에 대하여 다채로운 경험과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연수하리라 생각했다.

나의 연수보고서는 어느 특정의 목적과 방법 등 틀에 꿰어 맞추거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평가하는 등 기행문 형식으로 작성해 보려고 하니 다소 투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날>

우리 일행은 한국시간 새벽 5시에 의회 앞에 모두 모여 의회 사무과장 등 직원들과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공항으로 가기 위해 군청을 출발했다. 인천공항에서 티켓팅을 마치고 출국 수속을 하였으나 비행기 연착으로 11시 25분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 뉴욕공항(케네디공항)에 미국시각으로 11일 오전 11시에 도착하여 출국 수속 후 현지가이드를 만나 점심식사를 하고 하루 일정을 열어갔다.

국제연합(UN)본부, 반기문총장이 근무하는 곳이라 혹여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말도 안되는 기대를 잠시 하면서 견학을 했다.

UN본부가 1946년에 설치된 후에는 국제정치의 각축장이 되었다. 본부 주변에 UN가입국가 국기게양과 관광객들의 사진촬영으로 분주하다. 뉴욕의 거리도 여느 도시처럼 교통이 혼잡하기는 마찬가지이고 불법주정차는 엄청난 벌금으로 인해 감히 할 수 없다 보니 그래도 소통은 되는 것 같다.

입장하기 전부터 철저한 보안검색 후 회의하는 장면을 겉으로만 견학, 세계평화를 위한 것이란 것 이외에는 별로 느낀 것은 없다.

견학을 마치고 Doubiet 호텔에 여장을 풀고 저녁식사 후 의장님 방에서 하루에 대한 의견교환과 한국에서 가져간 쇠주로 회포를 풀었다.

< 둘째 날>

맨하탄으로 투어를 하면서 이지역 400키로평방미터의 방대한 면적, 47개마을 약 50만명이 거주하는 생활폐수처리장을 방문하였다.

운영방식은 우리군과 비교해 보면 민영화라 볼 수 있다.

처리 유입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거미줄망처럼 얽혀진 관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선진국답다는 생각이 든다.

일일처리량은 약1억 9백갤런이라는데 리터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운영비용은 정부지원 없이 각 가정이나 기업으로부터 자체처리 비용으로 운영하며, 9명의 무보수 위원들이 위원회를 열어 각 사업 결정이나 처리비용 등 제반 결정을 스스로 하고 있다.

모든 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다 보니 많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철저한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50년 전에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니 놀랍기 그지 없다.

하수처리 관로 길이는 150마일을 관리하고, 운영인력은 180명이 근무하며 처음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지만 점차적으로 자체 운영하고 있다.

1950년에는 각 자가처리를 하다가 1952년부터 종합처리장 방식으로 변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지원 없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자체 기금으로 투자하는 방식이고, 이곳은 절대 신공법을 손쉽게 도입하지 않고 옛방식을 고수 하면서 구공법에 불합리한 부분과 노후된 시설만 새공법을 접목하는 방식이라 하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특이한 것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모아 에너지로 전환하여 자체 난방으로 이용하는 한다는 것으로 진천군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 시설의 책임자인 스티브씨의 성실한 설명과 친절한 안내는 너무 인상깊어 오래 기억될 것이다.

< 셋째 날>

워싱턴 D.C로 이동하면서 느낀 것은 이곳 주민 70% 이상 흑인이 거주하고 연방정부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이면서 빈부의 격차와 학력의 격차가 커 다른 도시에 사는 주민들보다 학력이나 소득 소준이 낮아 시 안에 사는 주민들 중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 한다고 한다.

우주박물관을 방문하니 방문객이 많은 이유가 있다.
워싱턴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박물관은 관내·외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이다.
빈부의 격차도 심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가진 자나 못가진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너무 좋다.

미의회 상원·하원, 국회의사당, 백악관, 제퍼슨 기념관은 외부에서 관람하면서 가이드 설명으로 대체 할 수 밖에 없었다.
특이한 부분은 백악관 최근접 거리까지 미국 국민이나 관광객에게 개방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참 자유스러움 속에서 질서나 자국민 보호 등 민주적인 부분에는 철저한 나라다.
이렇게 하루 일정을 마무리 하고 숙소로 향한다.

<넷째 날>

캐나다로 넘어 가기 위해 새벽 4시에 기상하여 펜실베니아주를 거쳐 나이아가라 폭포에 도착, 미국측에서 보는 나이아가라는 폭포 전체를 보지 못하고 상단에서 흐르는 물과 폭포 윗부분만 일부 보였다. 캐나다로 가는 입국 절차는 간편하면서도 까다롭지 않고 빠르게 이루어져 편하게 캐나다로 갈 수 있었다.

반대편 캐나다에서는 나이아가라의 장관을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헬기 투어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일정은 내 일생 처음 헬기를 타는 설레임과 그 아래 펼쳐지는 장면은 이루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 같다.
장장 13여시간에 걸친 자동차 장거리 이동이라 그런지 캐나다에서의 첫날밤은 피곤하여 그대로 밤을 맞이하고 말았다.

< 다섯째 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까이 보기 위해 혼블라워호에 탑승하여 우의를 뒤집어 쓰고 폭포 아래까지 관람. 폭포가 포효하는 웅장한 소리와 물안개가 관광객에게는 최고의 환영 퍼레이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천연의 자원이 이 나라의 관광수입 뿐만 아니라 자원을 잘

보존하여 천년 만년 간직 하길 바랄 뿐이다.
점심 식사후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농장을 견학, 처음에는 복숭아를 주로 하고 사과나 체리를 경영하면서 점차 체리로 수종을 변경한다고 한다.
주변에 많은 복숭아 농장이 있지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에 이 농장이 인기가 더 좋다고 하니 같은 동포로서 감사하고 존경할 만 하다.

나무 밑둥에 흰색 수성페인트를 칠해져 있는 것은 이지역 야생동물이 나무에 접근 갉아 먹는 것을 방지하고 또 병충해 피해를 최소화 한다니, 나도 며칠 후 체리나무 10여주를 심을 예정인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으려나 한번 시도 해 볼려고 한다.

암튼 이 농장은 재배하여 1차 산업으로 판매도 하지만 체험이나 관광객 유치로 부가가치를 최대한 올리고 있는 성공한 한인 농장이라 생각한다.

다음 일정은 토론토 시청방문으로 시청 내부는 사전에 조율이 없기에 외부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 하고자 한다.

우선 시청건물이 구시청과 신시청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게 특색이다. 우리는 구건물은 흔적도 없이 철거하지만 여기는 구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다 보니 신, 구의 조화가 참으로 이채로와 관광상품으로 활용도 한다.

정말로 나를 사로잡는 장면은 시청건물이나 광장을 잘 조성하여 모두 시민에게 돌려주며 시민과 함께 한 공간에서 숨 쉬는 장면이었는데 우리도 공공건물의 군민 활용 등 접목이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월드컵을 응원하듯이 이들은 시청 광장에 야외공연 무대를 설치하고 분수대 및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팔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배울점이 많다.

시가지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좁은 도로를 차도(정차장), 자전거, 인도를 잘 조화롭게 활용한다. 우리는 낯설지만 이들은 참으로 질서를 유지해가는 것을 보면 오랜 시간을 걸친 그들만의 방법인 것 같다.

<여섯째 날>

킹스톤으로 가기 위해 약4시간 정도 차로 이동한다. 도시와 도시로 이동하려면 적게는 4~5시간은 기본으로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부산 정도는 일상 이동경로이다.

이동하면서 이들의 신호등은 우리와 달리 케이블을 늘여서 거기에 신호등을 달았다는 게 특이한데 태풍이나 해일에도 견딘다고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각 주마다 법이나 제도가 다른 게 지방자치 20여년이 넘은 우리도 하지 않는 자치법이 월등 앞서 있다고 본다.
자동차 번호판도 앞면에 부착하지 않는 점을 보더라도 그러했지만 암튼 각 주의 자치법이 주마다 다르다 하니 지방자치를 한다는 우리가 부끄럽다.

시가지의 또 하나의 특색은 건축물이 신, 구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고, 가로수 수령이 제법 된 것과 시내 중심가의 곳곳에 공원과 나무가 많아 삭막함 보다는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듯 하다.

캐나다 세인트강 섬들은 천여개로 이루어져 있고 부자들이 섬을 소유하면서 별장처럼 이용하고 있다니 부익부 빈익빈 차이가 많다.

몬트리올 올림픽경기장은 양정모 선수가 올림픽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안겨 주었던 곳이라 감회가 남다르다.

오늘은 이동 거리가 너무 많아 주변의 풍경을 관람하면서 단풍을 만끽하며 한인타운거리, 성요셉성당, 노틀담 성당을 스쳐 지나간다.

< 칠일째 날 >

퀘백으로 이동하여 당초에는 퀘백협동조합연합회를 공식방문 계획이었으나 우리측과 연합회와 사전 일정이 맞지 않아 방문이 전격 취소 되어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현지 사정이었다.

공동묘지를 주거지역과 가까이 조성하는 것은 우리들과 장례문화의 차이이다. 공동묘지 주변의 토지가 오히려 가격이 높다고 하니 우리와는 정반대이다.

시내 관광과 주요 관광지역을 두루 보다 보니 청소노동자들과 상봉, 노동에 찌들은 모습보다는 행복해 보인다 할까?
그 정도로 노동의 강도가 약하다는 증거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다.

미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10시간 이상을 달려 국경지역에 도착하였다. 캐나다 국경을 넘을 때와는 달리 미국은 국경을 통과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엄격해 정말 이민국 관계자들의 갑질에 화가 치민다.

이민국 문앞에서 한 시간이 넘도록 기다려도 누구하나 관심도 없기에 가이드에게 가서 항의나 의사표현을 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이러는 게 비일비재한 일이라며, 그러다 몇시간 동안 몸이나 가방 수색을 받을 있다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기다리다 보니 또다시 은근히 화가 치민다. 그들은 자국 보호라 하지만 캐나다와는 하늘과 땅 차이로 너무 심하다.

< 팔일째 날>

공식일정은 오늘이 마지막 인 거 같다. 보스톤을 거쳐 뉴욕으로 가려면 약 6시간을 차에서 보내야 한다.

하버드대학은 세계적인 수재들이 모인 학교인 만큼 관광객이 자주 찾는 코스중의 하나다. 특이할 만한 것은 이 대학의 한해 기부금이 우리나라 일년 예산보다 많다니 가히 이 대학의 권위나 위상을 상상해 볼 만하다.

전세계의 경제, 문화, 과학, 금융을 움직일 수 있는 학도들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교, 노벨상 받은 사람만 무려 200여명이 된다 하니 과히 대단한 대학이다.

< 마지막 날 >

공항으로 가기 전 맨하탄 옛 철길을 잘 활용한 곳을 견학, 폐철길을 원형 그대로 놓고 주변에 꽃과 식물을 식재하고 트래킹 코스로 주민들이 조깅하고 가족들의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정확한 길이는 모르겠으나 짧은 거리가 아니다. 시간이 좀더 주어졌더라면 끝까지 돌아보고 싶었다. 활용도가 극대화 된 거라 평가하고 싶다.
맨하탄 시내는 굴뚝이 모두 지하로 매설되어 있다는게 특징이다.

8박 10일의 일정은 선진국의 문화, 교육, 도시, 농촌, 의료, 경제, 관광자원, 등을 두루 살펴보기에는 다소 무리인 듯 하다.

광활한 미국, 캐나다 본토를 일부 떼어서 나름 열심히 살폈지만 아주 일부만 연수 결과물로 내놓을 수 밖에 없기에 불만족하고 아쉽게 느껴진다.

이동 거리가 길다 보니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늘 내가 주장하는 것은?
어디를 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듣고, 연수하여 단 한 가지라도 우리군정에 접목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군을 만들까를 고민해야 한다.

이렇듯 틀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생각과 느낀점을 그대로 표현한 점을 양해하기 바란다.